



KWCC로 읽는 국내 와인 시장의 흐름

2005년 첫 해를 시작으로 해마다 열린 코리아와인챌린지(이하 KWC)는 한 해 국내 시장의 가장 큰 와인 이벤트로 자리 잡았다. 그러한 만큼 KWC가 한국 시장에 시사하는 바는 크다. 국내 와인 시장의 양적·질적 성장과 함께 KWC가 성장했고, KWC 출품 와인의 다양성은 한국 와인 시장에 활기가 되는 상생의 결과를 낳았다. 매해 KWC의 특징과 KWC 심사위원들이 남긴 심사평을 토대로 지난 15년간 국내 와인 시장의 흐름을 돌아본다. 글 강은영 사진 장영수. Vino Box Studio

2005

출품 와인

134종

출품 국가

10개국(칠레, 호주,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스, 미국, 스페인, 뉴질랜드, 헝가리, 포르투갈)

keyword

#국내 최초 와인컴피티션 #국내 와인문화의 안착 #한국인을 위한 와인바인가이드

2005년 제 1회 KWC가 열린다. 당시 국내 최초 국제적 와인 컴피티션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는 점만으로도 시장에 던지는 의미는 컸다. 2005년은 2004년 한-칠레 FTA 체결 이후 고무적인 분위기가 이어지고, 웰빙 트렌드에 힘입어 저도주와 와인에 대한 관심이 무르익던 시기였다. 와인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지만, 무수히 쏟아지는 세

계 여러 나라의 와인들 사이에서 갈피를 잡기 어려울 때,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와인을 찾는다는 캐치프라이즈로 KWC가 등장한 것이다. 1회 KWC에는 해외에서 초청된 와인 전문가 5인과 국내 소믈리에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국제적 와인 컴피티션의 틀을 잡았다.

"출품 와인의 질이 매우 뛰어났다"는 것은 당시 심사위원들의 공통된 평가. 해외 심사위원 케이스 골드스톤(Keith Goldston)은 "한국은 질 좋은 국제 와인들을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는 집결지 같다"고도 얘기했다. 국내 심사위원들은 출품 와인과 체계적인 대회 수준을 보면 "드디어 한국에도 와인 문화가 정착했구나"라는 감회가 든다는 평을 시작으로 "이제 와인의 품질이 여타 조 건보다 훨씬 더 중요시되는 시기가 올 것"이라는 기대를 남겼다.

또한 국내 와인 소비 트렌드가 서서히 변화되는 시점에 맞춰 KWC의 역할이 더욱 기대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2006

출품 와인

288종

출품 국가

13개국(이탈리아, 호주, 프랑스, 미국, 스페인, 아르헨티나, 캐나다, 독일, 뉴질랜드, 남아공, 우루과이, 포르투갈, 한국)

keyword

#2배 이상 성장 #소믈리에들에게도 성장의 기회 #한국와인시장의 국제적 위상

2회째 열린 KWC 2006은 전년 대비 출품 와인이 두 배 이상 증가하며, 국내 와인 시장의 성장기류와 함께 했다. 출품 와인의



종류가 증가한 만큼 KWC 2006에는 와인의 카테고리도 좀 더 세밀하게 나누어졌다. 심사위원도 보강됐다. 이러한 성장에 대해 심사위원으로 참가했던 프랑스 와인 석학 장 끌로드 라비(Jean Claude Raby)는 "한국이 국제적으로 간과할 수 없는 와인 시장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또 그는 에르미타주, 샤토뇌프 뒤 빠쁘, 생페밀리옹, 사블리 그랑 크뤼 등 프랑스 그랑뱅에 속한 와인들의 출품이 높았던 점을 지적. "한국이 그동안 긴 명성을 쌓아온 그랑뱅 생산자들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이야기했다.

심사위원으로 참가한 한 소믈리에에는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와인이라면 단연 감미롭고 목 넘김이 부드러운 와인이 아닐까? 너무 드라이하거나 거친 탄닌이 감지되는 와인은 썩 내켜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라며 '한국인의 입맛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기 위해 고심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내 심사위원들이 가장 많이 언급한 이야기 중 하나는 "KWC 심사를 통해 소믈리에로서 성장하는 기회가 됐다"는 것이다.

2007

출품 와인

454종

출품 국가

13개국(칠레, 프랑스, 이탈리아, 호주, 아르헨티나, 스페인, 뉴질랜드, 캐나다, 독일, 포르투갈, 남아공, 우루과이, 한국)

keyword

#국내와인시장 급성장 #출품와인 2배증가 #칠레 와인 큰 비중 차지

2007년 3번째 KWC는 출품 와인 종수가 다시 한 번 전년 대비 2배 이상 성장하며 새 기록을 썼다. 국내 와인 시장 역시 2001년 이후 2006년 말까지 매년 수입 와인(금액 기준)이 30%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던 시기이다. 특히 칠레 와인의 수입량은 2001년 대비 그간 23.6배 성장했다. KWC 2007의 출품 와인 중에서도 칠레의 비중이 33%(148종)로 1위를 차지했다. "양적 성장의 꾸준함이 이뤄지고 있는 반면 특정 카테고리의 와인에 편중된 경향에 대해서는 변화가 있길 기대한다"는 심사위원의 의견도 있었다.

또 한편에선 당시 국내시장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는 캐나다 스틸 와인, 우루과이의 와인 등이 출품해 메달을 수상했다는 점은 고무적인 결과며, 출품 와인이 한층 다양해졌고 이러한 약진을 발판으로 한국 시장도 크게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를 표하기도 했다. KWC 운영방식에서도 변화가 생겼다. 기존에는 예선은 국내 소믈리에들이, 본선은 해외에서 초청된 와인전문가들이 심사

2008

출품 와인

776종

출품 국가

16개국(칠레, 이탈리아, 호주, 프랑스, 아르헨티나, 스페인, 미국, 남아공, 캐나다, 독일, 뉴질랜드, 포르투갈, 우루과이, 루마니아, 일본, 레바논)

keyword

#한국와인시장 호황 #KWC 성장 거듭 #다양한 산지의 와인 #신세계 소비층 블랑 인기

1회인 2005년부터 4회째인 2008년까지 KWC는 성장에 성장을 거듭했다. 그것도 매년 2배 이상이나 그에 가까운 성장세를 보였다. 2008년은 국내에서 와인을 주제로





한 TV 드라마가 방영될 정도로 와인의 인기가 상승했던 시기다. 또 대기업들이 와인 시장에 뛰어들어 적극적인 공세를 펼쳤다. KWC 2008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이탈리아 와인컬럼니스트 엠마누엘레 펠루찌(Emanuele Pellucci)는 “와인을 평가하기 좀처럼 쉽지 않을 만큼 양질의 와인들이 출품됐다”는 평가 함께 최근 한국 와인시장은 대단한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한국은 구세계와 신세계 생산자 모두에게 구미가 당기는 시장이고, 가성비 좋은 와인뿐 아니라 상류층을 타겟으로 한 고급 와인들이 들어올 틈새가 있다”**고 이야기했다.

KWC 2008은 16개국에서 어느 때보다 풍성한 와인들이 출품된 해인만큼 “다양하고 새로운 와인들의 출품으로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는 평이 주를 이뤘다. 일본, 레바논, 우루과이, 루마니아 등 낯선 산지들의 와인이 출품됐고, 포르투갈의 토착 품종으로 빛은 와인, 오스트리아의 디저트 와인 등이 좋은 평을 받았다. 또한 신세계 소비농 블랑 와인들의 약진이 돋보였다.

2009

출품 와인

784종

출품 국가

15개국(프랑스, 칠레, 이탈리아, 호주, 미국, 스페인, 아르헨티나, 남아공, 루마니아, 독일, 우루과이, 뉴질랜드, 포르투갈, 아제르바이잔, 한국)

keyword

#리먼사태 이후 #주요생산국의 모든 산지 와인 #다양성 부각 #신세계 와인의 약진

와인바나 샵이 많이 생겨났고, 다양한 와인들의 수입이 이어지며 와인 시장은 좀 더 무르익어갔다. 하지만 2008년 9월 리먼 사태 이후 세계 경제 위기의 그늘이 드리운 시기이기도 했다. 불안한 국제 정세와 환율 폭등의 여파가 KWC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KWC 2009에는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해 784종의 와인이 출품됐다.

전체적으로 출품 와인의 품질은 향상되었고, 화이트와 스파클링 와인의 비중도 늘었다. 전년에 비해 출품 국가 수는 줄어들었다.



으나 세부지역별로 보면 오히려 더 다양해졌다는 평이 나왔다. 프랑스, 이탈리아, 호주 등 주요 참가국들의 경우 거의 모든 산지에서 와인이 출품됐고, 토착품종 와인들도 대거 출품되어 다양성은 한층 부각됐다.

1회 때부터 심사위원으로 참석한 호주의 와인 전문가 데니스 개스틴(Denis Gastin)은 **“최근 몇 년간 내린 하나의 결론은 신대륙의 와인생산자들이 신생 와인 시장인 한국이 자신들에게 보다 열려 있는 경쟁을 가능하게 해 줄 시장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KWC의 주요 참가국으로 맹활약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조영현 소믈리에 역시 **“신세계 와인의 약진은 국내 시장의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2010

출품 와인

729종

출품 국가

14개국(칠레, 이탈리아, 호주, 프랑스, 미국, 아르헨티나, 뉴질랜드, 남아공, 스페인, 독일,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캐나다, 아제르바이잔)

keyword

#세계경제침체 #와인행사법람 #와인의 상황평준화 #칠레 와인 호평 #화이트 와인 성장

세계적인 경기 침체의 여파는 KWC에도 영향을 미쳤다. 첫해부터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왔던 KWC는 2010년에 이르러 처음으로 출품 와인이 전년 대비 소량 감소했다. 그러



나 14개국에서 729종 출품이라는 기록은 결코 작은 숫자는 아니다. 내용면에서는 더욱 작지 않았다. 오히려 그동안 양적 성장이 두드러졌다면, KWC 2010은 출품 와인의 질적 성장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당시 심사평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있다. **“10달러 미만의 와인 카테고리에서도 와인의 색깔이나 맛에서 충분히 퀄리티를 느낄 수 있었다. 와인 양조 방법이나 테크닉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2010년 와인 시장은 소비자들의 팍 닫힌 지갑을 열기 위해 각종 와인 세일 행사가 범람했고, 가격 대비 질 좋은 와인을 찾는 스마트 소비가 키워드로 떠올랐다.

각국에서 와인을 빚기 위해 땀방울을 쏟는 생산자들도, 그 결과물로 KWC에 출품된 와인들도 시대의 요구를 잘 반영한 것이다. 그 중에서도 KWC 첫 해부터 꾸준히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인 칠레의 와인들에 대한 호평이 많았다. 저가부터 고가까지 칠레 와인 전반적으로 품질이 우수해졌고, 특히 화이트 와인의 성장이 돋보였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2011

출품 와인

407종

출품 국가

14개국(칠레, 이탈리아, 호주, 프랑스, 스페인, 아르헨티나, 미국, 포르투갈, 뉴질랜드, 캐나다, 남아공, 오스트리아, 독일, 한국)

keyword

#한-EU FTA 발효 #식약청와인통관규정 #국내 수입와인만 출품 #균일한 퀄리티

2011년은 7월 1일부터 한-EU FTA가 잠정 발효되면서 와인 시장에 새로운 기대감이 감돌던 시기였다. 그보다 한 달 앞서 진행된 KWC 2011에는 이런 분위기와는 달리 예상치 못한 비보가 떨어졌다. 식약청의 와인 샘플 통관 규정이 일부 수정되면서 해외에서 출품되는 미수입 와인들의 통관이 어렵게 된 것이다. 그로인해 출품 와인은 407종으로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KWC 2011에 대한 평가는 출품 와인 모두가 이미 국내 수입되어 있는 제품이라는 점에서 특징이 드러난다. 수입사와 한국 와인애호가들에게서 한 번 검증은 거친 와인이라는 점에서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와인을 고르는데는 KWC의 취지와는 더욱 맞아 떨어졌고, 와인의 퀄리티가 어느 정도 보증된 상태라는 의미이기도 했다. KWC 2011에도 칠레, 호주, 미국 등 신대륙 와인들의 약진

이 두드러졌다. 구대륙에서는 프랑스 론 와인들이 강세를 띄었고, 이탈리아 토착 품종들이 선전했으며 포르투갈 와인들의 새로운 도전이 인상적이었다. 심사위원들은 **“출품 와인들이 균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달리 평가하면 각 지역별 특징이 두드러지기보다는 여러 지역의 장점을 고루 흡수해 글로벌화 된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2012

출품 와인

550종

출품 국가

14개국(칠레, 호주, 이탈리아, 프랑스, 크로아티아, 아르헨티나, 남아공, 미국, 루마니아, 캐나다, 뉴질랜드, 스페인, 포르투갈, 한국)

keyword

#칠레 와인 40% 이상 #아르헨티나 와인의 활약 #이탈리아남부 와인 호평



2012년은 식약청 및 세관의 협조로 해외에서의 와인 출품이 재개되었다. 그 결과 총 550종의 와인이 출품됐다. 그 중에서도 칠레 와인은 42.5%라는 독보적인 참여율을 보였다. 이에 대해 심사위원 데니스 개스틴은 **“칠레 생산자들에게 한국 시장의 전략적 가치를 일깨워주는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더불어 많은 심사위원들이 칠레 와인의 퀄리티 향상이 놀랍다는 이야기를 꺼냈다. 이외 눈에 띄는 신대륙 국가는 아르헨티나다. 2012년 상반기 아르헨티나 와인의 국내 수입량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런 경향은 KWC에서도 드러나는데, 아르헨티나 와인의 참여율이 높았을 뿐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심사위원들의 찬사를 가장 많이 받은 와인들이었다는 사실이다. 그 외 이탈리아 남부 와인에 대한 호평이 눈에 띈다. 한편 2006년, 2011년에 이어 한국 와인이 출품되었고, KWC 2012에서 처음으로 수상의 쾌거를 거두었다. 또한 크로아티아와 루마니아 등 미지의 산지에서 온 신선한 와인들의 참여가 KWC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 새로운 와인들이 국내 시장에 진출하는데 교두보가 되는 KWC의 역할이 강조되는 해였다.



2013

출품 와인

550종

출품 국가

16개국(칠레, 이탈리아, 프랑스, 호주, 스페인, 아르헨티나, 미국, 뉴질랜드, 포르투갈, 우크라이나, 캐나다, 오스트리아, 독일, 몰도바, 남아공, 한국)

keyword

#마시기 편한 와인 선호 #신세계 피노 누아 인기 #이탈리아의 다양한 와인

2013년에는 전년과 동일한 수준인 550종의 와인이 출품됐다. 국내 와인 시장은 2008년 세계 경제 위기 이후 조금씩 회복을 하는 중이었지만, 그 이전과 같은 큰 성장 폭은 기대하기 어려웠다. 와인을 소비하는 층도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지만 와인 애호가들 중심으로 와인을 소비하는 문화는 좀 더 자리를 잡아가던 시기다. “갈수록 KWC 출품 와인의 품질이 높아 우열을 가

리기 힘들다.” 지난 몇 년간 심사위원들이 가장 많이 언급한 이야기가 흔한 인사치레는 아니었던 것이다. KWC 2012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김용희 소믈리에에는 **“양조기술의 발달은 이제 구세계와 신세계의 경계를 더욱 좁혀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밝혔다. 칠레 와인은 퀄리티가 높아지기도 했지만, “좀 더 모던하고 편안 스타일로 바뀐 것 같다”는 평을 들었다.

점차 마시기 편한 스타일의 와인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시기였던 만큼, KWC 출품 와인들에서도 이런 트렌드를 엿볼 수 있었다. “신세계 피노 누아 와인이 더욱 기대된다”는 이야기나 “이탈리아 와인의 저력을 느꼈다”는 평가도 당시 시장에서 주목받는 와인들을 다시금 확인시켜준다.



하는 경향이 늘어나며 오프와인 시장의 희비가 교차하던 때이기도 하다. KWC 2014에는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한 560종의 와인이 출품됐다. 2014년 상반기 기준 국내 와인 수입 현황을 보면 주요 와인생산국 중에서는 이탈리아의 성장률이 가장 높았다. **이탈리아는 KWC 참여율로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해온 국가이기도 하지만, KWC가 해를 거듭할 때마다 출품 와인들이 가장 다채롭게 변화해 온 곳이다.**

KWC 초기, 출품된 이탈리아 와인의 거의 절반이 모스카토였다. 하지만 차차 빼메테나 토스카나 레드 와인을 시작으로 남부 와인들까지 출품되며 이탈리아 토착 품종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었다. 2014년은 하반기 한국과 호주의 FTA 발효 소식이 있던 때였다. 그러한 기대 심리 탓인지 호주 와인의 출품도 증가했으며, 결과적으로도 호주의 신흥 와인생산자 가트 와인이 3번 연속 트로피를 차지하며 위용을 뽐냈다. 그리스, 불가리아, 중국 등 아직 국내 시장에서는 낯선 산지에서의 와인 출품은 계속됐다.

2014

출품 와인

560종

출품 국가

16개국(칠레, 이탈리아, 호주, 프랑스, 아르헨티나, 뉴질랜드, 스페인, 포르투갈, 미국, 캐나다, 남아공, 불가리아, 독일, 중국, 그리스, 헝가리)

keyword

#와인 소비 저변 확대 #이탈리아 와인 소비 증가 #호주 와인 출품 증가

2014년은 소비 심리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와인 소비의 저변 확대가 이뤄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던 시기다. 지속되는 경기 침체의 탈출구로 집에서 와인을 소비

2015

출품 와인

705종

출품 국가

20개국(칠레, 호주, 이탈리아, 프랑스, 아르헨티나, 스페인, 미국, 뉴질랜드, 독일, 캐나다, 포르투갈, 모로코, 남아공, 크로아티아, 인도네시아, 중국, 그리스, 루마니아, 헝가리, 이스라엘)

keyword

#국내와인시장 회복세 #미지의 산지 와인 돌보여 #아시아 와인 출품 #호주 와인의 성장

국내 와인 시장의 회복세가 반영된 것일까. KWC 2015에는 총 705종의 와인이 출품되어 지속 성장하던 예년의 위세를 되찾았다. 출품 국가는 총 20개국으로 늘어났다. 늘 꾸준히 참여하는 칠레, 호주, 이탈리아, 프랑스, 아르헨티나, 스페인, 미국, 뉴질랜드 외에도 모로코, 크로아티아, 중국, 인도네시아, 그리스, 헝가리, 이스라엘, 루마니아 등 새로운 와인 산지들의 참여가 그 어느 때보다 눈에 띄었던 해이다. 특히, 중국과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국가 와인의 참여는 대



회에 큰 흥미를 안겨주었다. 기존 주요 참가국들 중에서 가장 주시됐던 나라 중 하나는 호주였다. 연초 한-호주 FTA 발효로 인해 호주 와인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모아졌기 때문이다. 칠레 와인이 217종으로 여전히 출품 수 부동의 1위를 차지했지만, 호주에서도 130종의 와인을 출품하며 당당히 2위의 자리에 올라섰다. 75종이 출품된 2004년과 비교하며 거의 2배 가까운 신장이었다. 더욱이 **호주 미수입 와인들의 참여가 월등히 높았다는 점도 한-호주 FTA 발효 이후 한국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호주 생산자들의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2016

출품 와인

814종

출품 국가

18개국(칠레, 프랑스, 호주, 이탈리아, 스페인, 아르헨티나, 포르투갈, 뉴질랜드, 미국, 그리스, 캐나다, 독일,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남아공, 슬로바키아, 헝가리, 오스트리아)

keyword

#출품와인 수 역대 최대 #화이트·스파클링 와인 소비 증가 #스페인 와인의 활약

KWC 2016에는 814종의 와인이 출품해 최고 기록을 갱신했다. 2011년 이후 500여 종에 머물렀던 출품 와인 수가 지난해 700종을 넘기면서 완전한 회복세를 보였고, 2016



년에 이르러서는 역대 최고치를 달성하며 국내 와인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상승시킨 것이다. 실제 2016년 와인 판매 현황은 전년과 비슷하거나 소폭 상승세를 나타냈다. 또 두드러졌던 특징 중 하나는 그간 수입량의 80%를 차지했던 레드 와인이 60%대로 떨어지며, 그 빈자리를 화이트와 스파클링 와인이 채웠다는 사실이다. 흥미로운 점은 KWC 2016에 참여한 심사위원들도 “올해는 뛰어난 화이트 와인이 많이 출품됐다”고 한 목소리로 얘기했다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그리스 화이트 와인에 대한 찬사가 압도적이었다. 그간 미지의 와인 산지에 머물러있던 그리스는 2016년 국내에서는 최초로 와인 세미나 및 시음회를 개최하며 한국 시장에 적극적으로 문을 두드렸다. 이런 기세가 KWC에도 반영되어 그리스 와인의 선전이 어느 때보다 두드러졌던 해였다. KWC 2016에서는 스파클링 와인의 경쟁도 한층 심화됐다.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양대훈 소믈리에에는 “스파클링 와인은 전부 본선에 올리고 싶을 정도로 품질이 좋았다”고 평을 했다. 한편 이해에는 어느 때보다 스페인 와인의 활약이 두드러졌던 해이기도 하다.

2017

출품 와인

810종

출품 국가

23개국(칠레, 호주, 이탈리아, 프랑스, 아르헨티나, 미국, 스페인, 포르투갈, 뉴질랜드, 루마니아, 그리스, 체코, 캐나다, 마케도니아, 오스트리아, 독일, 남아공, 불가리아, 인도네시아, 리투아니아, 헝가리, 아제르바이잔, 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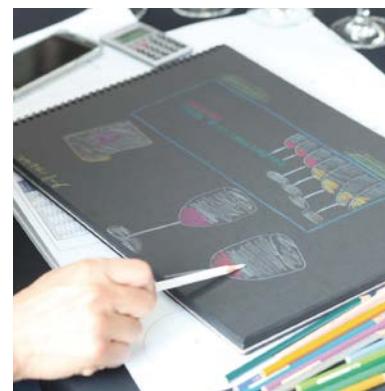
keyword

#역대 최대 출품 국가 #와인의 다양성 #스파클링 와인 소비 트렌드 지속

KWC 2017에는 출품 와인 수는 810종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출품 국가들의 면면은 훨씬 다채롭다. 총 23개국, KWC 사상 가장 다양한 나라에서 와인들이 도착했던 해이다. 체코, 마케도니아, 불가리아, 인도네시아, 리투아니아, 아제르바이잔, 중국, 루마니아 등 잘 알려지지 있지 않는 미지의 산지들에서도 한국

시장에 문을 두드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로제 와인으로 트로피를 수상해서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심사위원으로 참가한 김용희 소믈리에에는 “출품 와인의 다양성에서는 최고의 해”였다고 평가하며, “**토착품종 와인들도 독특함보다는 세계적인 입맛에 맞춰 잘 다듬어진 와인이 많았다**”고 언급했다. 2017년의 국내 시장은 지난해에 이어 스파클링 와인과 화이트 와인의 소비가 크게 성장하던 시기였다.

이런 트렌드를 반영하듯 KWC 출품 와인에 스파클링과 화이트 와인의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또한 KWC 2017에 출품된 와인들은 요즘 트렌드에 맞는 편안한 스타일의 와인들이 많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심사위원 이창근 소믈리에에는 “칠레 와인 역시 점점 더 주이시해지고 편안한 아이템들이 많아지는 것을 보면, 세계적으로 점점 더 편안하고 쉽게 마실 수 있는 와인이 트렌드가 되어 가는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2018

출품 와인

660종

출품 국가

16개국(호주, 칠레, 이탈리아, 프랑스, 아르헨티나, 스페인, 포르투갈, 뉴질랜드, 미국, 그리스, 캐나다, 독일,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중국, 한국)

keyword

#호주 와인 최대 출품 #새로운 와인을 찾는 경향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잠재력

2018년 국내 와인 시장은 젊은 소비층의 증가로 인한 변화들이 눈에 띈다. 2018년을 전후로 젊은 소비층의 증가는 꾸준히 언급된 트렌드였고, 그와 함께 1~3만원대 가성비 와인이 흥했다. 새로운 와인을 찾는 경향은 고조되고 구세계 와인 중에는 스페인과 이탈리아, 신세계 와인 국가로서는 미국과 호주 와인 소비가 꾸준히 증가했다. KWC 2018은 KWC 사상 최초로 호주가 칠레를 제치고 가장 많은 와인을 출품한 해이다.

그간 KWC에는 많은 신세계 와인생산국들이 적극 참여해 와인의 퀄리티를 증명하는 기회로 삼았다. 그 결과 근래 심사위원들은 신세계 와인들의 약진을 주요 특징으로 꼽고 있는데, KWC 2018에서는 와인의 질적 수준과 더불어 “전형적인 타입에서 벗어난 새롭고 다양한 스타일을 선보인다”는 점에서도 호평을 얻었다. 2018년 대회는 낯선 산지에서 생산한 와인뿐 아니라 유명 생산국의 잘 알려지지



않은 품종들로 빛은 와인들도 대거 출품되어 한층 다채로운 무대가 마련됐다. 한편 KWC 2018에서는 ‘스페인과 포르투갈 와인의 잠재력’과 ‘이탈리아 와인의 끝없는 다채로움’이 화두였다. **실제 국내 시장에도 대해 새로운 이탈리아 와인들이 런칭되고 있는데, KWC 2018에서는 다양한 문페롤치아노 와인과 이탈리아 화이트 와인에 대한 찬사가 쏟아졌다.**

2019

출품 와인

704종

출품 국가

18개국(이탈리아, 호주, 칠레, 프랑스, 스페인, 아르헨티나, 미국, 뉴질랜드, 포르투갈, 그리스, 모로코, 조지아, 루마니아, 오스트리아, 남아공, 캐나다, 독일, 몰도바)

keyword

#이탈리아 와인 출품 1위 #그리스와 포르투갈 와인 시장 안착 #내추럴 와인의 붐

KWC 2019에는 총 18개국에서 704종의 와인이 출품됐고, 이탈리아가 2006년 이래 두 번째로 최대 참가국에 이름을 올렸

다. 그 뒤는 지난해 최대참가국이었던 호주가, 3위는 칠레와 프랑스가 공동으로 차지했다. 초기부터 KWC에는 새로운 산지의 와인들이 꾸준히 참여해 국내 시장에서 입지를 다졌다. 대표적 성공사례가 그리스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국내 시장에서 그리스 와인은 생소하게 여겨졌지만, 한국 시장에서의 몇 년간 공격적인 마케팅을 이어오고 KWC를 통해 꾸준히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업계 관계자들에게 확실한 이미지를 심어줬다. 또 하나는 포르투갈이다.



포르투갈의 스텔 와인은 근래 KWC에서 가장 주목받는 와인 중 하나였고, 국내 시장에도 점차 새로운 포르투갈 와인이 들어오고 있다. 무엇보다 2019년 국내 와인시장의 가장 뜨거운 키워드는 내추럴 와인이었다. 비록 내추럴 와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미미하지만 탄탄한 마니아층을 중심으로 내추럴 와인바나 샵이 생겨나고, 오로지 내추럴 와인만을 마신다는 소비자들도 나타났다. KWC 2019에도 적은 양이었지만 내추럴 와인과 올덴지 와인들이 출품되어 심사위원들의 이목을 끌었다. ㄴ